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사회는 숨 가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해 달려왔지만, 그 대가로 인간관계의 해체라고 하는 심각한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보았다"

-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난 후 살아남은 사람은 전체 탑승자 2,200명 가운데 약 700여 명이었는데 대부분은 배의 위쪽 칸에 있었던 일등실 탑승자였음. 이러한 결과가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 정치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소득세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191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4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세에서 유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해 질주해온 우리사회의 내면 실상을 극단적으로 확인해준 비극적 사건이었으며 해운 사기업과 공권력의 무능과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음.
- 더욱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전혀 진척이 없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자성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정부와 시민, 기업과 시민, 공공과 시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높아가는 불평등, 초유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점점 골든타임을 잃어가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요구와 같은 긴급한 사회적 도전을 수행할 의지와 세력의 규합을 어렵게 함.

- 우리사회 내부적으로는 신뢰의 붕괴 속에서 외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과 전략을 필요로 함. 이런 배경아래 점점 더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방법이자 뉴 버전의 개혁방식이 바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임.

1) 변화를 향한 드라이버, 사회혁신

- 기존의 해법을 대신하여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임. 사회혁신은 현실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제 만들어 보임으로써 **거시적 변화, Big Change**를 위한 계기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방법론임.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 불연속은 어느 한 순간의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극적인 변화뿐 아니라, **일상속의 끊임없는 불연속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 사회혁신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혁신은 태도와 행동, 인식(attitudes, behaviour and perceptions)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즉, 작더라도 대안적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아이디어와 접근방법을 필요로 함.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포함. 실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혁신적 구상을 혁신적 실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혁신의 매력이자 존재이유.** 이 대목에서 주로 문제제기와 주의환기, 청원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운동(movement)이나 캠페인(campaign)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함. (Therefore, we make a distinction between promising ideas (which may or may not become social innovations) and social innovations.)(TEPSIE 2012)

- 모든 훌륭한 사회혁신 뒤에는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에 대한 발견과 공감이었음. 이것은 마치 시장에서의 모든 탁월한 상품들 뒤에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한 기업의 노력이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정치에서의 모든 훌륭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밀착해서 들었던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과도 동일한 맥락임.
- 사회혁신이라는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곳 역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임. 여기서 특히, 단기적 이익이 없어(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절대 사적 기업은 손댈 가능성이 없고, 공적 기관은 정치적 이유로 회피하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는 절실한 생활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 따라서 혁신해야 할 대상/문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며, 문제의 선정 안에 거의 '문제를 푸는 주체'와 '향후 문제 해결로 수혜를 볼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 인식과, 통찰이 절대 긴요한 것. 즉 사회혁신은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현재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난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절대 다수 시민들의 공통된 필요와 연결되는 거대한 문제를 두개만 꼽으라면 바로 불평등과 생태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이외에도 교육, 주거, 고령화와 인구학적 문제, 복지, 세계화의 충격 등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는 매우 복잡함. 더욱이 이들은 상호 얽혀있음.
- 모든 혁신은 과거의 틀을 깨는 이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과도기적이며, (그래서 혁신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안착하면 그것은 이제 혁신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됨) 따라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으며, 상당한 측면에서 진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바로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혁신을 이해하는 것.

- 동시에 사회혁신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실물로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업이자 비즈니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이미 물질적 제품 생산을 넘어서 각종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음. 따라서 사회혁신이 비즈니스 주체와 비즈니스 방법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함.
- 통상 사회혁신의 출발과 근거는 미시적 차원(개별 기업, 개별 공동체 차원, 개별 사안 차원)에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미시적 사회혁신에 그칠 수 없는 Big Change / System Change가 필요한 시점. 따라서 미시적 혁신이 거시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함.
- 2008년 이전의 사회혁신전략이나 사례들은 시스템 변화를 자극하는 수준의 혁신 보다는 기존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의 소극적 사회혁신전략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 교체를 공략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혁신 전략’을 필요로 함. 적극적, 능동적, 거시적, 입체적 전략이 필요함

2) 사회혁신 키워드 발견을 위한 방법론: 오픈랩(Open Lab)

- 오픈랩Open lab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실험과 혁신, 연대가 교직되는 활동 현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패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미세한 진동들을 감지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지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목함.
- 정교한 논리와 개념으로 텍스트화된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보다 수많은 층위에 내재된 경험들의 내러티브와 암묵지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소들을 키워드로 사회 언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됨.

- 파일럿 개념으로 진행된 오픈랩Open lab은 불특정 대중, 즉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시민 커뮤니티 그룹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내러티브와 현실 그대로의 정보에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여 큐레이션 개념을 도입함.
-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열개로 삼아 개인적(personal), 공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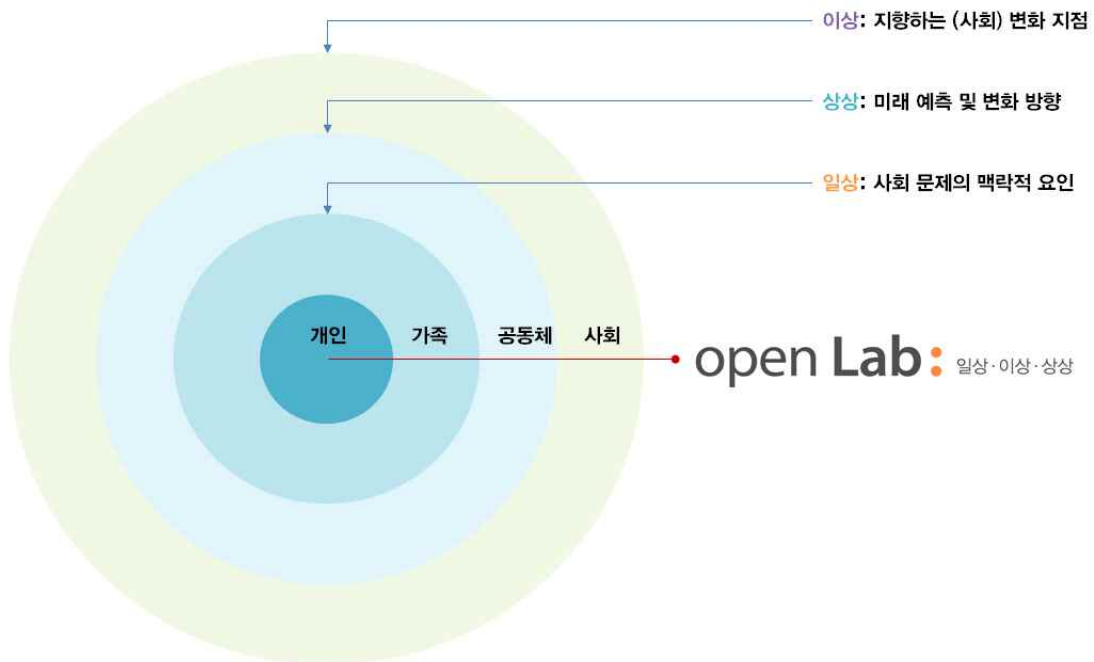


그림 2: 오픈랩 운영 구도

- 큐레이터로 참여할 연구진들의 활동 영역은 크게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와 같이 시민사회, IT와 기술, 경제와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환경과 도시재생, 청년문제, 정치적 자유권 등을 주제로 대안적 가치를 지향함.

- 큐레이터들은 오픈랩의 일상·이상·상상으로 함축된 화두를 매개하는 발신매체이자 관심그룹들을 네트워킹하는 허브가 되어 독자적인 lab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정보를 발굴·수집함.
- 지식정보, 데이터를 큐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담지하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연구자그룹을 총괄큐레이터와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판단의 쓸림 현상을 경계함.



그림 3: 오픈랩 운영 유형

-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등 일상·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기본 골격으로 세우고 모임을 진행했으며 찬반 구도의 논쟁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교류에 집중함.

표1. 주제별·대상별 운영방법

성격 구분		현상 고찰/ 의제 지형 파악	문제 발굴/미래 예측	솔루션 모색
주 제 의 이 해 도	전문 그룹	이그나이트 세미나 1:1 인터뷰	LSP, 이그나이트 세미나 전문가FGI 5-Question	전문가FGI 컨퍼런스
	관심 그룹	레고시리어스플레이 (이하 LSP) 이그나이트	그룹인터뷰	그룹인터뷰

- “자기 말이 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응답받는다”는 경험”과 “자신이 어떤 장소에서는 긍정되고 있다는 감정”이 교차될 수 있도록 오픈랩에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자기 언어, 경험들을 배려하는 친밀권의 장으로 기획함.
- 친밀감과 내밀한 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지향의 작은 모임으로 구성하고, 커뮤니티 카페, 프로젝트 실험 공간, 문화 공간 등 주제에 맞는 공간의 정체성을 결정함.
- 학생, 인턴, 시민활동가, 귀농부부, 회사원, 협동조합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기획자, 학자, 디자이너 등 다분야 활동가들을 초대하는 방식임. 낯선 이들과의 교류 모임의 성격도 있어서 살롱 문화나 소셜 다이닝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모임 전 친교 시간(아이스 브레이킹, 선물 증정 등)을 별도로 마련함.
- 학술연구회, 정책 의제를 생산하거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실천 활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위와 연결하여 오픈랩 모임과 결합함.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아리포럼, 흥대텃밭 다리, 신중년 숲해설사 커뮤니티, 가칭) 공동체주택포럼 준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모임 운영함.

- 집밥, 은평상상허브, 청년허브, 전주 차라리언더바 등 플랫폼 또는 플랫폼 기능을 지향하는 개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심 그룹들을 발굴·선별함. 오픈랩 참여자들의 추천 또는 연결로 후속 참여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오픈랩 네트워크의 기반이 형성됨.
- 도시기획자그룹, 환경단체 활동가그룹, 미디어연구그룹 등 현장에서 쌓은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한 참여자 발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I,II,III,IV그룹(아래 그림 참고)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함.

표 2. 참여자 유형별 분석

		전문성			
		학자 그룹 (I)	활동가 그룹 (II)		
이 론 중 심				현 장 중 심	
		개인적 활동 그룹 (III)	커뮤니티 활동그룹 (IV)		
		비전문성			

■ 참여자 특성

-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연구-저술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함. 참여자들의 활동/역할을 보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행정관료, 사회적 기업가, 정치인, 정당 당원, 시민 활동가, 교수/연구자, 중간지원조직, 개발자, 교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직장인, 협동조합, 기획자, 디자이너, 대학(원)생, 뮤지션, 청년혁신활동가, 귀촌/농인,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으로 분류. 20대부터 50대

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했으며¹⁾, 전주에서 진행된 모임 이외에 서울에서 진행되어 주로 서울에 사는 이들로 집중됨.

표 3. 오픈랩 모임별 토론방식과 참여자 특성

lab 이름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참여자 특성	참여자수
기술과 사회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	1. 질문 선정 2. 온라인 통해 질문 3. 전체 키워드 fgi 등의 방식으로 정리	기술 관련 전문가 및 각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개발자, 교사, 기획자, 마케터 등)	약 20명 (인터뷰 20명 + 기자 4명)
일상과 가족	가족의 모습	키워드 기반 FGI/소셜픽션 기반 LSP	가족 관련 현장 및 전문가/가족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35명
	돌봄	키워드 기반 FGI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공공성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정치의 재구성	키워드 기반 FGI/1:2 대면 인터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청년세대, 공적 커뮤니티 관여자, 1인 가구 관련 현장 경험자, 정치 관련 IT 프로젝트 진행	약 25명/인터뷰 3명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사회혁신가 성장/ 사회적 금융	키워드 기반 소셜다이닝	30대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약 20명
청년	일상 문제	이그나이트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 등 다분야 활동그룹 참여	21명
도시	도시재생	이그나이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에 관여한 도시기획자들 네트워크	150여명
	토지 이슈	이슈 생산형 전문가토론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등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진단과 분석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이니셔티브	키워드 기반 FGI/대면형 델파이기법	정책집행자, 정치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참여	6명
치유와 복지	치유와 복지	이슈 생산형 FGI/소셜다이닝	사회복지사, 관련 중간지원조직, 공공의료기관 등 활동가 대상	11명
기후모임	기후변화와 삶터, 삶의방식	키워드 기반 FGI형 소셜 픽션/소셜다이닝	전문가 커뮤니티부터 기후 관련 관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미래 예측, 대안을 모색함.	35명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한반도 경제	문제 발견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분야 학자들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 상호토론을 통해 현실적 대안 강구	40여명

1) 청년들의 자기 발언 시간을 염두한 ‘오픈랩: 미래세대’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의 초기 모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3) 변화를 보는 맥락의 변화

- 2014.10~2014.4 기간을 통하여 9개 오픈랩(OpenLab)에서 약 350여명의 생활인,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문제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사회혁신의 단서들을 종합하였음.

미래세대	일상과 가족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살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술과 사회	기후변화 및 살터, 삶의 방식	한반도경제	
어쩌라고	개인성 기반 다양한 가족	주민권	시민이니셔티브	토지임대부 개발	인간 존엄 중시 경제	시빅 해킹 Civic Hacking	검은 비(미세먼지 관리)	사회변화와 개인화	빛/부동산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한다	가족이란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도시공유공간	석관동 두산아파트	도심부 재생	사회적 금융	오픈 소스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소득주도성장	금리/연금
존엄을 지키는 삶	새로운 가족들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관계국가	경제플랫폼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학교	정보민주화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비정규직/영세자영업
작은 커뮤니티	가족치료사	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관계와 친밀권	리빙랩	중간/차세대 혁신가	누구나 코딩	녹색 삶의 디자이너	공유자원으로 서의 조세	저출산과 이민/고령화
유니버설 디자인	초국가적 가족	뉴거버넌스	마을계획	공유도시	경계를 잇는 전문가	메이커문화	POOR&RICH	네트워크/네트워크경제	도시 네트워크
다면적 정체성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	차세대 정치인 육성	긴장사회/암	노마드적 삶	공유자산	무장애 세상	사라져가는 산, 그리고 한국형 공유화 운동	벤처 생태계/사회혁신 거버넌스	사회복지제
긍정적 경험의 부재	인격을 존중하는 플랫폼	정치협동조합	치유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육아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Robot	모두를 위한 놀이터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중간민주주의/사회적 합의
주민성		플랫폼형 정당	존엄		학교 협동조합: 협동조합 학교	감시사회, 기술을 감시하는 또 다른 기술	도시농업, 먹거리에서 도시재생까지	작은 학교/거꾸로교실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속하고 싶지 않다			Mindfulness/영적 성장		협동DNA의 재발견	3초 사회	탈원전	지속가능한 재정/조세정의	한중FTA
권리화된 요구					커뮤니티 기반 시장	기회 균등 vs 불평등	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	6차 산업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명확한 입장 말하기					혁신플랫폼		환경거버넌스	강력한 중국/AIIB/한중FTA	한반도

그림 4: 오픈랩 운영결과 유도된 사회혁신 키워드

- 즉, 사회혁신이라는 렌즈로 우리사회의 문제, 문제를 푸는 솔루션,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관찰하고 숙고하며 상상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거대한 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객관적인 기술 혁신이나 경제 사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임. 사물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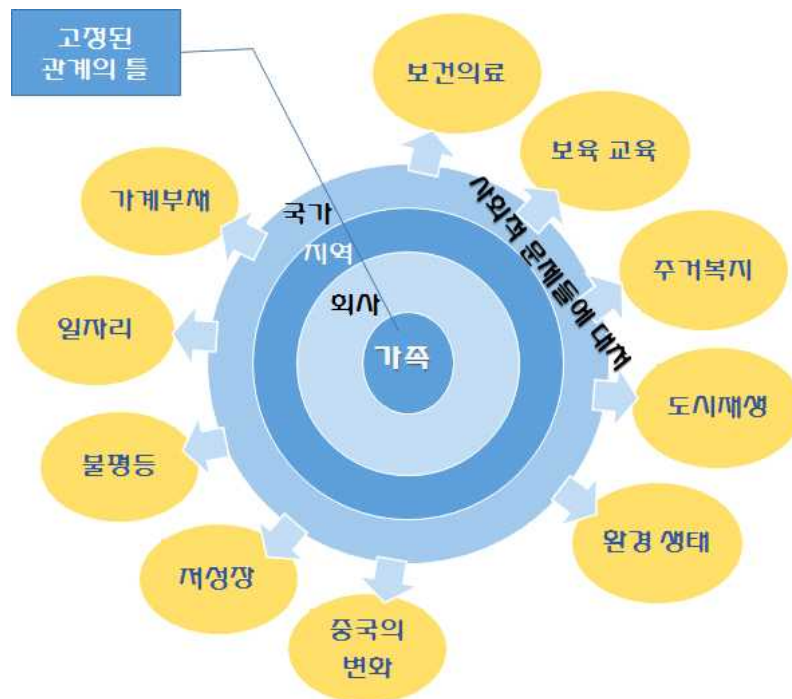


그림 5: 과거의 사회 집단 주체들과 그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들

- 과거에는 변화를 구상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구조(개인 - 가족 - 직장 - 지역 - 국가)라는 틀이 의연히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관계에 의지해서 객관적인 사회문제(일자리와 교육, 주거, 보건, 기후 변화 등)에 대처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나와 내 주위의 관계(집단) 자체가 변화의 한복판에 있고, 여기가 문제와 변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기존 혈연가족의 해체나 1인 가구의 주류화 등은 전통적인 가족 의존형 자구적 복지 체제의 해체와 함께 광범하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각 개인들은, 이전처럼 국가와 같은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또는 국민, 시민, 심지어 '우리'라는 주어진 공동체 속에 '과묵한' 개인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냈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변화도 추구해 나가려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혁신 전략은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과제를 분류하는 식의 도식과 문법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의제와 연결시키면서 변화의 전략을 짜는 식으로 이론적, 정책적 문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공백지대에서 관계의 변화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다양한 활동 방식과 해법을 창안해내면서 동시에, 시장 자체의 혁신, 국가 자체의 혁신으로 변화의 반경을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 속의 나의 삶이 변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우선 오픈랩의 실행을 종합한 결과, 주체 자신과 주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9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6: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사회혁신 중심 키워드

-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사회문제들(가계부채, 일자리, 불평등, 건강과 교육문제 등)을 열거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대신, ‘나(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이 가운데 객관적 사회문제가 어떻게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는지, 개인과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문법을 사용할 것임.

4) 사회혁신을 내포하는 중심 키워드

0

1 솔루션이자 변화의 드라이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설적이지만 사회혁신 그 자체임.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의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대부분의 삶과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런데 기존 방식의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적 사회개혁으로는 지금 직면한 사회적 난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시장과 국가라는 전통적인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다수의 개인들, 주민들, 시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솔루션을 찾아 실험하지 않으면 과거의 마스터플랜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기 어려움.
- 변화가 절실한 여건에서 다수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인지하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미시적 생활현장에서부터), 기성의 마스터플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뛰어들어 ‘실행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어나감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임. 요약하면 사회혁신은 사회개혁의 뉴 버전이고 위로부터가 아

나라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 사회개혁을 의미함.

1

개인화(Individualization): 높아가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

- 사회의 변화는 더 많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수동적으로 안주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임. 이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와 관계가 재설정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임. 개인주의가 추세적으로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통신혁명 등에 힘입어 온라인 등에서 공동체에 접속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현상에 대해 클레이 셔키 등이 ‘네트워크화된 개인화 (networked individualizat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 개인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혁신과 발전에 의해 뒷받침 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임. 개인 단위로 생활이 가능한 물질적 수준이 지원 되어야 개인화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를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하게 해줌. 실제 현재 수준의 개인화 역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임.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개인화 추세와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 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는 ‘Maker’, ‘DIY’, ‘누구나 코딩’ 등의 기술적 트렌드는 개인화와 연동하여 변해가고 있음.
- 개인화 추세가 삶의 방식에 던진 가장 파급력 있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할 것임. 1인 가구현상을 자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희구라고 판단할 수 있음.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1인 가구 현상을 주로 ‘자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자연스런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했다.”)

2

자존감(self-respect)과 존엄(dignity): 차세대 사회정책의 목표

- 우리의 자존감은 현재 사회활동의 도처에서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음.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자존감’이며, 스펙경쟁과 취업경쟁에 몰입한 청년들은 끊임없이 ‘존재감’에 대한 질문을 강요받음. 이른바 ‘잉여사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들이 사회적 잉여로서 취급받는 현실이 이를 입증함. “자신은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존재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은 타인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슬픔보다도 더욱 통절한 것”²⁾
- 30, 40대 우리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들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각종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은퇴 후의 노년은 불안정한 노후 여건 속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임. 한마디로 전 세대에 걸쳐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심 척도인 존재감, 자존감, 존엄은 일상의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존과 존엄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님. 그것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 과정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이것은 **자존과 존엄이 우리사회의 노동과 복지, 교육 등 주요 경제 사회정책을 펼 때 매우 강력한 근거 틀이 될 것임을 말해줌.**
-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단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아님.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은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멸시와 모멸감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2)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40쪽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진정한 좋은 일자리란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과 인격, 사람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게 하는 것임

- 복지정책 등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단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과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함. “우리는 복지를 단순히 물질적 재화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 문제는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존중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문제다.” “물질적 재화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구체적 방식일 것이다.”³⁾
- 즉,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복지’가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음. “복지제도가 복지 대상자들을 어떤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부끄럽고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그것은 모욕적이다.”

3

시간권리: 시민들에게 '시간에 대한 자유' 를 되돌려 주자

- 요즘에는 '주거권'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음.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쉬고 누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 취지로 '시간권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을까? 시민들이 자신의 휴식과 자신만의 생활과 자신만의 계획을 위해서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은 없어도 어쩌면 시간이 더 절실 할 수 있음. 수년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바로 시간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된 얼마나 큰 열망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3)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 시간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 문제’나 ‘노동 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적 의제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 이제는 우리도 ‘과로사회를 넘어서 여가사회로’ 혁신해야 할 시점임. 시간은 유한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임. “시간빈곤, time poor”를 벗어나려는 큰 발걸음을 떼어야 함.

4

관계의 이동: 개인은 지금 기존 관계에서 빠져 나와 새 관계 모색중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 전까지 비교적 고정적이고 탄탄하고 단순한 몇 개의 관계에 속했음. 예를 들어 혈연중심의 가족, 지역적 고향, 학교 동문 - 학생회, 평생직장 - 노동조합/농민회, 단일 민족과 같은 관계가 있었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점 빠르게 약화되거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친척의 끈이 희미해진 것은 오래되었고 가족의 끈조차 느슨해지고 있음. 더욱이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를 강하게 규정짓던 지역과 고향도 세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무어지고 있음. 학생회나 노동조합은 과거의 규정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임. 이미 200만에 육박하는 이주민은 단일민족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균열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사회의 기본단위였던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눈에 띈. 과거에 전형으로 불리던 ‘4인 혈연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1인 가구시대, 솔로 소사어티 시대를 이미 맞고 있음. 그러나 복지와 경제, 공동체와 경제를 위해서 솔로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나 사회혁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형편임. ‘외롭지 않은, 서로 연결된 솔로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혁신이 더욱 풍부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대유행과 정규직의 장기근속

불안은 매우 탄탄했던 직장의 인간관계를 매우 임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변질시켰음. 노동시장의 이중화 등의 달라진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정된 협력 틀이었던 노동조합의 약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서구에 비해 확실히 오랜 중앙 집권적 국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국가 귀속감과 국민으로서의 연결감, 여기에 오랜 단일 민족 전통이 겹쳐지면서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국가 공동체에 대한 연결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빠른 속도의 세계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 정치 사회의 분권화와 시장화 등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국가와 자신의 관계 규정력을 약하게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물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정주성의 불안으로 인해 도시 소속감 역시 큰 것은 아님)
- 이처럼 기존 공동체와 관계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해체되거나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중. 어떤 측면에서는 '자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실 더 강력하게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동 중임.
- 기존 공동체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함. 바로 이 같은 '이동의 중간 과정'에서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삶의 불안정성,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관계의 단절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겪고 있음. 즉, 시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특히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무연사회'의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음, 인간관계의 커다란 해체와 전환, 이동 경험하고 있는 중.

5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 다양하고 중층적인 열린 공동체가 전망된다.

- 얼마 전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나 시민,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과묵한’ 개인**으로 존재했음.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율,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보호되었음. 이는 가족, 지역, 직장, 국가 등 거의 모든 공동체 걸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임.
- 그러나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물론 그것이 공동체나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완전한 개인주의 추구는 아님.
-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율과 독립을 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존”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의 복지 안전망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남. 현실에서 육아나 돌봄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존재해야 개인의 독립과 자율도 보증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좀 더 느슨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즉, 대규모의 일차원적 획일적 공동체들이 아니라, 분권화 된 다면적/다층적인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길 원하고 있음.

6

친밀한 관계: 사적, 공적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요구

-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은 최근까지 관계에 의해 얻어야 할 필요를 시장에서 계약을 통한 거래관계로 해결(구매)하려 했지만, **돈이 없**

으면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냉정한 시장의 관계는 명백히 전체 인간관계를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되고 있음.

- 이런 조건에서 사적인 관계처럼 배려와 이해의 관계가 작동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친밀권이라고 할 수 있음.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방문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나 의논, 잡담을 즐기기 위한 살롱적 관계도 친밀권에 포함된다. 타자의 구체적인 삶, 생명에 일정한 배려나 관심을 갖는 것이 친밀권의 최소조건이다.”⁴⁾
- 이는 대표적으로 이웃 사이의 따뜻한 배려관계, 또는 ‘호혜적 생활’ 관계망 등에서 구현될 수 있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도시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때,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상의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망(친밀권, intimate sphere)이 생기면 가정 폭력 문제를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공의 공간’으로 드러내기 쉽다. 또 지역 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개입하기도 훨씬 용이해진다.”⁵⁾
- 친밀권은 무너지가는 기존 관계를 대신하는 대안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돌봄이나 안전 등 복지정책에서 특히 이 관계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높음. 돌봄이나 안전은 공적 관계에 의해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공공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반해서,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 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에 의해 형성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밀권이 돌봄과 안전에 더욱 적절함.
- 친밀 관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친밀권은 자존과 존엄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됨. “친밀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외부에서 부인 혹은 멸시의 시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자존 혹은 명예의 감정을 회복하고, 저항의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지처일 수 있다.”⁶⁾

4)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108쪽

5)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1쪽

- 앞으로 우리사회는 경제영역은 물론 지역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살아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수많은 사회혁신 활동이 예상된다. 다수의 사회혁신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처럼, 새로운 열린 공동체 역시 ‘거래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계약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의무와 권리로 고정된 공적 관계도 아닐 것임.

7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공공영역을 넓힌다.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임⁷⁾.

6)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7)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 사실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협력하여 해결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혁신 자체가 주민 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이니셔티브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과 주민, 시민들의 관계가 여전히 제공자 - 수혜자 관계라는 과거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 됨.

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힌다.

-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물적 자본의 부족의 고려되던 시대였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적자본 투자가 부쩍 강조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그러나 실제로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있었는지는 회의적임.)
-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인적자본투자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투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앞서 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 활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함.
- 그러면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쌓여 가는가? 대표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소득이다. 수입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남을 믿을 여유도 생긴다. 둘째는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수준이다. 단결이 잘된 사회일수록, 단일 민족에 가깝고 언어도 통일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신뢰구축이 용이하다. 셋째, 소득의 고른 분배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사람이 많을수록, 친밀함이 유지된다. 소득수준의격차가 극심하면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요인은 제도적

구조다.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국가이고 국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편이고,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번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면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⁸⁾

9

세대간 지속가능성: 앞 세대에게 원하는 바램 그대로 뒤 세대에게

- 우리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과 부, 국가의 재정과 복지자원 그리고 환경자원에 대해 세대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으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그런 차원에서 진정하게 ‘세대 사이의 협력’을 모색해야 함.
- 세대에 걸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경제침체 속에서 성장인가 생태 환경보호인가 하는 전통적 대립구도의 딜레마에 갇혀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Anyone who believes exponential growth can go on forever in a finite world is either a madman or an economist)”라고 예언한 선구적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경고가 지금도 의연히 중요하는 것임. 이는 인류역사 전체에 걸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역사적 변화를 보아도 명확한 것임.
- 물론 “경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더해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 또한 절박한 과제다.”⁹⁾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

8) KBS 사회적자본 제작팀(2013),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50쪽
 9)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작한 책가게, 32쪽

시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탄소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방안은 효과가 매우 크다. 저탄소 세상을 향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투자가 향후 50년간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노동집약도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주요 투자 영역으로 “건물 개량, 대량 운송 철도, 지능형 전력망, 풍력과 태양력, 차세대 바이오 연료”등임.

- 특히 “투자의 목표 또한 분명히 변화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점점 더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은 여전히 꼭 필요하겠지만 그 목표를 더욱 신중하게 지속가능성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투자의 초점이 자원 생산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기술, 녹색 산업, 기후 적응성 향상과 생태계 강화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¹⁰⁾

10)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179쪽